

연구 방법으로써의 질적 인터뷰: 철학적 의미와 방법적 측면*

Qualitative interviewing as a research method:
Its philosophical frameworks and practical guideline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조 교수 천혜정*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eon, Hyejung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말: 대화로써의 인터뷰 | IV. 맺는 말 |
| II. 질적 인터뷰의 철학적 의미 | 참고문헌 |
| III. 질적 인터뷰의 실행: 방법적인 측면 | |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provide philosophical frameworks and approaches, and practical guidelines to interview research. While there are some studies which focus on the practical guidelines, there is a lack of studies which address the philosophical and conceptual issues integral to qualitative interview research. By discussing three different but related philosophical aspects of qualitative interviewing--phenomenology, hermeneutics, and dialectics--consistency among research purpose, research method, research methodology is pursued. Based on this discussion, four stages of interviewing--designing, conducting, analyzing, and writing of qualitative interview research--are presented.

Key Words : 연구방법(research method), 질적 인터뷰(qualitative interview),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 대표저자, 연결저자(Corresponding Author) : 천혜정(hjcheon@ewha.ac.kr)

I. 들어가는 말: 대화로써의 인터뷰

대화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들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 알게 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알게 된다. 인터뷰(interview)는 말 그대로 상호 관점(inter-view), 즉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두 사람 사이의 관점의 교환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는 그 이상이며, 철저하게 검증된 지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중한 질문과 청취의 접근법이다(Kvale, 1996).

이러한 대화는 지식을 얻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투시디테스는 전쟁의 역사를 쓰기 위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과 대화를 했고,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 대화를 사용했다. 그러나 연구 방법으로써 인터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대화로써의 인터뷰를 방법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을 뿐더러 연구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어 때때로 과학적이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써 질적 인터뷰를 비판한 대표적인 철학적 입장은 실증주의이다. 실증주의 철학에 의하면, 과학적인 연구는 객관적이고 양적이어야 하며 가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Smith, 1983). 이러한 입장에서 보

면 인간간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인터뷰는 모호하고 모순적일 수 있으며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양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지식은 인터뷰의 목적이 아니다. Bernstein(1983)의 주장대로 진정한 지식은 담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며 담론의 매개체인 언어는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것도 아닌 상호주관적인 것이다.

질적¹⁾ 인터뷰에서는 양적인 자료보다는 해석되어야 할 의미들에 관심이 있다. 인터뷰의 주요 과제는 인터뷰 참가자(interview participant)²⁾가 말한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터뷰 참가자가 명백히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행간’에 말해진 잠재된 의미까지 정형화시켜 인터뷰 참가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까지를 포함한다(van Manen, 1990).

이러한 연구 방법은 사회 과학의 지식과 연구의 개념을 새롭게 풍부하게 해준다. 그러나 방법론적인 문제들 중 많은 것이 인터뷰 방법의 기술적인 미숙함이라기 보다는 이론적인 가정의 불명확함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즉 인터뷰 기술보다는 질적 인터뷰의 이해 방식이 담고 있는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 방법으로써 질적 인터뷰의 인식론적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 연구 방법론, 연구 방법과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것은 인터뷰의 실행 단계

- 1) 단지 인터뷰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질적 연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가 어떠한 인식론적, 존재론적, 방법론적 믿음을 가지고 인터뷰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는가, 그리고 인터뷰를 사용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인터뷰라는 연구 방법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즉 완전히 구조화된 인터뷰 형식을 취하여 인터뷰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구별되는 의미로 “질적” 인터뷰(qualitative interview)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보통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이라는 말로 통용되기도 한다.
- 2) 보통 interviewer/interviewee의 관계로 연구 대상자(subjects)로 불리우나, 이 용어는 단지 인간을 연구할 대상으로 객체화하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질적 인터뷰에서 연구 대상자는 연구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의미를 같이 발견해나가는 존재이므로 인터뷰 참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에서 부딪히는 많은 실질적인 문제들을 개념화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인터뷰를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기법과 인터뷰의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질적 인터뷰의 철학적 의미

질적인 방법으로써 인터뷰의 이해 방식이 담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철학은 인간 세계의 경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인터뷰를 사용한 질적 연구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방법론적 문제들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1. 체험의 순수한 기술(description)으로써의 현상학(phenomenology)

현상학이라는 용어는 Kant와 Hegel의 철학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사용되는 의미로써의 현상학은 Husserl이 창시하였다. 현상학은 현상에 관한 학문이다. 심리학은 심리 현상을, 물리학은 물리 현상을, 역사학은 역사 현상을 다루지만, 현상학에서의 현상이란 의식과 동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의식과 관계된 그리고 의식에 나타난 현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식은 또한 현상을 존재하게 한다(van Manen, 1990).

Husserl이 실증주의적 과학을 비판할 때 가장 주요한 논거로 삼은 것이 바로 생활 세계(life world)의 개념이었다. 생활 세계는 현상 그 자체를 몸소 체험하는 세계로써 주관적 의미를 기반으로 한 주관적 작용의 결과로 형성

된 의미의 세계이다(이영호, 1990). 이러한 생활 세계는 개인의 의식이나 자아가 아닌 공동체 의식이나 공동체적 자아, 즉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기초하며 문화적 전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는 하나의 주어진 실체라기보다는 상호주관적, 상징적 공동 행위의 과정에서 개인들이 경험하는 생활 세계로 해석될 수 있다. Husserl은 자연 과학의 발달로 정량화되고 수치화된 과학 세계만이 진리라고 믿음으로써 생생한 체험 세계가 무시되고 따라서 그 세계 속에서 작용하는 이성적 주관의 존재가 망각되어 현대의 인간과 문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객관주의와 과학의 독단을 극복하여 생활 세계의 참다운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Kockelmans, 1994).

이것은 육체의 변화에 의해 영향받고 기본과 상태가 바뀌는 경험적 자아의 배후에서 어떤 육체적 변화나 시공간적 변화 그리고 외부적 인과 관계에도 영향받지 않는 불변의 자아 즉 순수 자아로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김영필, 1999). 이러한 순수 자아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소박하게 믿는 일상적인 자연적 태도에서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는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연적 태도에 대한 신뢰와 이러한 신뢰에 바탕을 둔 모든 객관적인 실체의 타당성을 유보하는 판단 중지(epoche)³⁾의 태도가 요구된다(Moustakas, 1994). 자연과학적 사고 방식에서 보면 우리가 직접 경험한 세계는 한가지 주관적인 세계가 되겠지만 Husserl이 현상학적 환원에서 배제한 자연적 태도란 이러한 자연과학주의적인 자연적 태도이다. 이러한 자연과학주의에 물들지 않은 원초적 지각에 나타

3) 현상학적 환원은 “관호로 묶기”, 즉 현상의 본질에 대한 편견없는 묘사에 도달하기 위해 현상에 대한 상식과 과학적인 선입견을 괄호안에 넣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세계, 즉 모든 이론과 논리에 앞서서 우리의 감각에 최초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판단 중지함으로써 순수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Kockelmans, 1994). 즉 현상학은 모든 선입견(편견)을 버리고 세계 및 세계 속의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존재 믿음을 중지하는 무전제에서 출발하며, 모든 대상을 의식에 나타난 현상 그 자체(사실 그 자체 특히 본질)로써 취급한다. 그래서 과학의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체험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다.

현상학은 우리의 생활 세계의 경험된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질적 인터뷰에서의 이해의 양식과 일치한다. 질적 인터뷰는 경험된 일상 생활에 접근하고 그것을 묘사하기 위한 고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즉 인터뷰 참가자의 생활 세계의 경험된 의미를 출발점으로 질적 묘사와 의미, 현상학적 환원의 표현으로써 의도적인 순진함과 무전제성이라는 현상학적 접근을 강조한다(Kvale, 1996). 연구자의 의도적인 순진함과 무전제성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현상에 대해 개방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신의 전제나 가설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뷰는 단순히 실험과 설문 연구로 얻어지는 기본적, 과학적인 양적 사실에 덧붙여지는 약간의 흥미로운 호기심이 아니다. 질적 인터뷰는 우리의 생활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에 특권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연구 방법인 것이다⁴⁾.

2. 경험의 이해(understanding)로써의 해석학(hermeneutics)

해석학적 전통은 원래 신학자들에 의해 성

경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비롯된 것으로서 해석학적 해석(hermeneutic interpretation)의 목적은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타당성 있고 일반적인 이해를 얻는 것이다. 해석학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법을 해명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해의 본질을 해명하는 학문이다(한국해석학회, 1996). 전자의 의미에 국한시킨다면 이해는 전달되는 텍스트의 바른 이해와 전달의 주체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방법에만 그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해석학에서의 이해의 개념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존재의 자기 이해(Gadamer, 1975)라는 영역까지 확대된다. 여기에서 이해는 감정입문과 구분되며 심리학적 범주라기보다는 존재론적 범주이다. 즉 이해란 삶을 구성하는 여러 기능들과 대조를 이루거나 그 뒤를 이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기능이 아니라 인간 삶 자체의 근원적인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전달의 내용뿐만 아니라 텍스트 전달의 주체자와 해석자의 존재 방식의 해명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 따라서 양자를 포괄하고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이해되어야 할 텍스트로서의 대상이 주어져야 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선이해(先理解)를 해석자는 가져야 하고, 해석하는 능력과 개인의 심리적 상태, 그리고 텍스트가 씌어질 당시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역사적 상황과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언어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이해의 과정은 해석자의 자기 존재의 이해로 귀착되는 총체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Palmer, 1969).

Gadamer는 진리에 대한 인식은 현실을 단

4) McClelland(1995)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어머니의 경험을 잘 묘사하고 있다.

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이 그 자체로는 가지고 있지 않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포착하지 않으며, 진리를 드러내는 데에는 해석자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석자는 원저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해석자가 현재 시점에서 텍스트가 쓰여진 과거로 소급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석자 자신의 현재적 지평에서 경험을 재창조(Gadamer, 1975, p. 114) 혹은 재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Gadamer는 지평 융합(horizon fusion)이라는 비유를 통해 텍스트의 해석 과정을 묘사한다. 지평 융합이란 텍스트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그것들이 우리의 현대 상황에 대해 갖는 의의와 통합하는 것이다. 텍스트란 늘 역사적인 것이고, 주어진 시간의 특수한 언어로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역사성이란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텍스트의 지향성과 독자의 역사적 가치가 융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Radnitzky(1970)는 해석학적 의미 해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터뷰 해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부분과 전체 사이의 계속적인 상호 과정이다. 전체 텍스트에 대한 모호하고 직관적인 이해에서 시작되어 개별적인 부분들이 해석되고 이 해석들로부터 부분들은 다시 전체와 관련된다. 질적 인터뷰를 분석할 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보편적인 의미를 얻기 위해 인터뷰를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는 특정한 주제나 표현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다시 부분들에 대한 심화된 의미의 견지에서 인터뷰의 전체적인 의미로 돌아오는 과정을 계속하며 이것은 악순환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적인 해석학적 순환⁵⁾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가 재인터뷰를 통해 참가자들과 그들의 진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텍스트의 전체적 의미와 부분적 해석을 검증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의미의 해석이 논리적 모순이 없는 텍스트의 내적인 통합에 이르면 끝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뷰의 해석은 각기 다른 주제들의 의미가 합리적인 패턴을 이루고 일관된 통일성을 나타낼 때 끝날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 설명할 변증법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텍스트의 자율성이다. 즉 텍스트는 텍스트 자체가 주제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밝힘으로써 텍스트 자체의 인식의 틀을 기초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 분석에서 이것은 대상자의 경험 세계에 대해 표현한 것을 이해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터뷰 텍스트는 연구자와 연구 참가자의 공동 창작품이며 연구자는 자신의 해석을 연구 참가자와 나눔으로써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된 의미는 해석을 통해 확장되고 개선될 수 있다. 여기에는 개혁과 창조성이 수반된다.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 이상으로 나아가고 텍스트에 새로운 차별성과 상호관계를 가져오는 것이 질적 인터뷰의 특징이며 질적 연구자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⁶⁾.

- 5) Schleiermacher의 ‘부분과 전체’의 변증법, Gadamer의 ‘참여와 소원’의 변증법, Ricoeur의 ‘질문과 응답’의 변증법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텍스트 의미에 대한 보다 완성된 이해를 얻게 되는 의식의 변증법적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 6) 김태현, 노치영(2003)은 중국에서 북한이탈여성이 중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회체계가 그들의 존재적 의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북한이탈여성들의 중국에서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3. 모순 탐구로서의 변증법적 접근(dialectic approach)

변증법이라는 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시대나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모순 또는 대립을 근본 원리로 하여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논리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변증법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Hegel 이후이며,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러한 의미를 갖지 않았다.

Hegel은 변증법이란 것을 인식뿐만 아니라 존재에 관한 논리로 주장하였으며 인식이나 사물은 정(正)·반(反)·합(合)의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고 하였다. 정(正)의 단계란 그 자신 속에 실은 암암리에 모순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며, 반(反)의 단계란 그 모순이 자각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순에 부딪침으로써 제3의 합(合)의 단계로 전개해 나간다. 이 합의 단계는 정과 반에서 볼 수 있었던 두 개의 규정이 함께 부정되는 동시에 함께 살아나서 통일된다. 따라서 변증법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실제 그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라면 사회과학의 과제는 사회적 상황의 진정한 모순을 탐구하고, 그것들을 맞부딪히게 하는 것이다.

질적 인터뷰에서는 참가자들은 종종 모호하고 모순된 진술을 한다. 이러한 모순은 단순히 의사 소통의 실패나 인터뷰 기술의 부족 또는 인터뷰 참가자의 성격 때문이 아닐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 자체의 모순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과 자각이 생기기도 하며, 인터뷰 참가자가 주제에 대한 설명이나 의미를 바꾸는 변

화가 일어나기도 한다(Patton, 1990).

이러한 철학들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 그 자체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는 인터뷰의 이해 양식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즉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 그 자체에 의존할 필요가 있고 인간 존재의 능동적인 삶의 표현들을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철학들 사이에는 많은 모순적인 가정들이 있다. 현상학은 무전제적인 묘사를 얻고자 하는데 비해 해석학은 해석에 의한 사전 지식을 강조한다. 인간 과학 연구에서 체험의 순수한 기술(description)로서의 현상학과 어떤 텍스트나 상징 형식을 통한 경험으로서의 해석학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Silverman (1984)같은 철학자는 기술적 현상학과 해석적 현상학을 구분한다. 그리고 Husserl의 선형적 방법을 엄밀하게 따르는 사람은 현상학적 연구는 순수한 기술이고 해석은 현상학적 연구의 범위 밖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나 상징 형식을 통한 경험의 해석을 보다 강조하여 기술적 현상학과 해석적 현상학을 구분하기도 하나 현대에는 해석학적 현상학 또는 현상학적 해석학으로 정확한 기술과 해석을 동시에 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적(interpretive) 접근은 몇 가지 결점이 있다. 우선 사회 현실이 다양한 주관적인 의미에서 구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가능한 해석의 범위는 그 개인이 살고 있는 특정 사회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사회 현실은 개인의 해석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실이 가능한 해석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 구성원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사회구조가 어떻게 특정 집단이 행동하는 범위를 제한하

는지에 대해 무관심하다. 따라서 해석적 접근은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인간이 억압을 받아 잘못된 의식(false consciousness)을 형성하여 체계적으로 왜곡된 이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Carr & Kemmis, 1986). 따라서 의식과 텍스트에 이상적으로 초점을 두는 현상학과 해석학은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강조하는 변증법과 대조된다. 해석학은 모순이 없는 해석을 얻고자 하는데 변증법은 사회적, 물질적 모순의 반영으로써 의식과 행동의 모순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같이 이러한 철학은 질적 인터뷰와 관련된 지식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철학들은 질적 인터뷰의 방법 단계들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개념화하고 사고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은 인터뷰 연구를 질문하고, 해석하고, 정당화하고, 보고하는데 있어서의 방법론적 선택에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질적 인터뷰의 실행: 방법적인 측면

질적 인터뷰를 수행하는 데에는 구조적이고 표준적인 절차가 없다. 따라서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점이 인터뷰 실행자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함과 동시에 인터뷰 실행자의 기술, 지식, 직관을 발휘할 수 있는 열려진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절차와 기법은 고정된 표준화된 방법이라기보다는 인터뷰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 질적 인터뷰의 설계--왜 인터뷰를 하는가?

질적 인터뷰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제의 내용과 연구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무엇을'과 '왜'라는 주제적 질문은 '어떻게'의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대답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은 채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열성적으로 달려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하다. 또는 인터뷰를 일단 실행하면 어느 정도 혼란을 제거하고 명확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한다. 이것은 대부분 헛된 희망이다. 연구자의 장황한 질문에 대한 짧은 응답만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얻게 되거나, 처리하기 곤란할 정도의 많은 양에 구체성이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쓸데없는 사변에 빠지게 된다. 즉 연구 방법이 주제와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주제와 목적이 내재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에 어떤 종류의 연구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를 연구의 주제와 목적이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기존 이론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내용에 대한 친숙도는 문헌이나 이론적인 연구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인터뷰가 진행될 환경, 예를 들면 지역적 언어, 일상 생활, 권력 구조 등에 집중함으로써 인터뷰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한 감각을 얻어야 한다.

어떤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그것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가, 혹은 어떤 경험의 발생이 다른 조건이나 사건들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한 관심은 질적 인터뷰의 주제에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질적 인터뷰는 "아동이 독립심과 부모의 양육 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가 아니라 "아동에게 독립심이라는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묻는 연구에 적합하다. 이러한 물음에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함으로써 독립심이라는 특수한 경험이 아동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질적 인터뷰를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인

터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에 대한 Hultgren(1989)의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질적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에 대한 의식을 성취하길 희망한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다--행동을 지배하는 어떤 규칙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니다. 경험에 대한 설명은 그러한 이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여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그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향상시킨다(p. 53).

또한 인터뷰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이슈가 있다. 구조화된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된 폐쇄형 인터뷰를 사용할 것인가, 혹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대화의 흐름을 강조하는 개방형 인터뷰를 사용할 것인가이다. 구조화된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된 인터뷰는 준비된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인터뷰 참가자가 말한 진술들 중 애매한 것들을 명확히 하거나, 추상적이고 짧은 답변에 대해 정교화시키는 작업에 집중한다. 또한 인터뷰 참가자가 말한 것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을 첨가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반면,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구조화된 인터뷰와 같이 질문을 준비하기는 하지만 보다 자유로운 대화 스타일을 강조한다. 인터뷰 참가자가 반응하는 것에 따라 인터뷰 질문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터뷰 참가자의 사고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뷰 실행자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노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보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복잡한 질문과 청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구조화된 인터뷰가 본 논문의 주제인 질적 인터뷰와 일맥상통하며, 질적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뷰 참가자가 말한 내용에 초점

을 둘 것인가, 혹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 초점을 둘 것인가하는 이슈가 있다. 내용 중심은 인터뷰 참가자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과정 중심은 참가자가 어떻게 말하는가, 인터뷰 실행자나 인터뷰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등에 까지 관심을 둬으로써 인터뷰 참가자가 말한 내용의 행간을 읽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인터뷰 과정은 인터뷰 내용을 확인시켜주거나 보다 풍부하게 해주며, 때로는 말한 내용과 모순을 보이기도 한다.

2. 인터뷰의 실행--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인터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 중요한 쟁점이 세 가지 있다. 윤리적인 문제, 질문하는 방법, 그리고 기록하는 방법이다.

1) 윤리적 문제 및 사전 동의

우선 인터뷰 참가자에게 연구의 전체적인 목적과 특징,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혜택을 알려주어야 한다. 사전 동의는 더 나아가 언제든지 연구에서 빠질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부적절한 영향이나 강제 의 가능성을 배제시켜야 한다(Moustakas, 1994).

그러나 사전 동의의 원칙이 실제에서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 말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며 글로 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가? 누가 동의를 해야 하는가? 또는 어떤 정보가 사용될 수 있으며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과의 인터뷰는 부모나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는가? 조직체에서의 인터뷰와 같이 여러 그룹이 관련되는 인터뷰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인터뷰 전에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소속 기관의 연

구에 대한 동의가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미묘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경우 동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이들 자신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누가 동의를 해야 하는지, 선생님인지, 학교 책임자인지, 부모인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Yow, 1994). 또한 사전 동의는 또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주어져야 하는가? 연구에 대해 완전한 노출을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참가자들을 특정한 대담으로 이끄는 일을 피하기 위해 일부 정보만 노출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수반한다.

인터뷰 연구에서는 또한 참가자의 개인적인 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비밀 유지의 문제가 중요한 윤리적 문제이다. 그러나 비밀 유지에 대한 윤리적인 요구와 과학적 연구의 기본적인 원칙 사이에도 갈등이 존재한다. Smith(1990)가 표현한 것처럼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언제 어디서 연구가 행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어떻게 연구의 결과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Eisner(1991)는 사전 동의라는 개념은 연구자가 인터뷰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신중하게 계획된 실험적인 연구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따라가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삼는 질적 인터뷰 연구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참가자가 인터뷰를 승낙하였다고 해서 연구자가 자료나 분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Lincoln(1990)은 사전 동의라는 개념을 연구 과정 전체를 통해 일어나는 대화, 즉 “연구 과정과 산물에 대한 참가자와의 협상, 그래서 연구의 최종 산물을 공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p. 289)이라는 개념과 대체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 질문하기

인터뷰 참가자들과의 어느 정도 연구에 대한 소개와 친밀감이 형성된 후 “...에 대해 말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등의 인터뷰를 열어주는 도입 질문을 함으로써 참가자 자신들이 연구 현상의 주요 차원으로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발적인 환경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 때 연구자는 “그 문제에 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이에 관한 다른 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등의 좀 더 엄밀한 질문을 통해 참가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유도할 수 있다.

인터뷰 참가자가 일반적인 경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는 “당신은 그 때 무슨 생각을 하였습니까?” “신체적으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당신의 기분은 어떠하였나요?” 등의 질문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설명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 도중에 참가자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명확화를 시도할 수 있다. “당신은 그 때...한 것을 의미한 것인가요?” “당신이...한 것을 느꼈다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이 말한 것과 ...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등을 질문함으로써 참가자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명확화 과정은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실제로 듣고 있고 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구 참가자들의 경험에 대해 사색적인 설명을 얻기 위해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은 참가자들을 방어적으로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왜 그러한가

에 대한 이유와 설명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가 파악해야 할 문제이고, 이것은 나중에 참가자에게 그 설명을 되돌려 줌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인터뷰의 전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물어 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 질문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3) 기록하기

오늘날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는 일상적인 방법은 녹음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인터뷰 실행자가 인터뷰의 주제와 그 과정에 집중할 수 있다. 어휘들과 어조, 침묵들과 같은 것이 영구적인 형태로 보존된다. 그러나 오디오 테이프는 인터뷰 내용을 탈맥락화시킨다. 그것은 그 상황의 시각적인 측면이나 주변 환경, 또는 참여자의 얼굴 표정이나 신체적인 표현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인터뷰 실행자는 자신의 감정이입과 기억에 의존해서 인터뷰가 끝난 후 그 중요한 면을 기록하고, 때로는 인터뷰 도중 기록한 메모의 도움을 받는다. 기억이 편견으로 가득 찬 주관적인 방법이라고 비난받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인터뷰 실행자의 적극적인 청취와 기억은 선택적인 여과 장치로서 이상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어떤 의미를 계속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이 녹음기에서부터 곧장 분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석을 하기 위한 일상적인 절차는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 과정은 자체적인 법칙을 갖고 있는 구어에서 또 다른 법칙을 갖고 있는 문어로 옮기는 일이다. 따라서 인터뷰를 서면으로 기록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문장들이 되풀이되는 표현을 포

함해서 있는 그대로 한 단어 한 단어 기록하여야 하는가? 또는 인터뷰 내용이 좀 더 형식적이고 문어적인 스타일로 변형되어야 하는가? 전체 인터뷰 내용이 정확히 재표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연구자가 내용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요약하고 압축해야 하는가? 침묵, 억양, 웃음, 한숨 등과 같은 표현들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표준적인 답변은 없다. 다만 연구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범주화하거나 요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면, 기록본의 어느 정도의 편집은 가능하다. 그러나 기록본이 심리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라면 감정적인 어조까지 포함한 말을 그대로 옮길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의 답변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3. 인터뷰의 분석--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 인터뷰 텍스트의 분석 방법

인터뷰 텍스트 분석의 목표는 인터뷰 텍스트를 연구의 주제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 때 연구자는 각 참가자가 말한 내용들의 큰 그림(big picture)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구 주제에 어떠한 통찰을 제공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으로 인터뷰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텍스트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질적 연구를 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해석학적 현상학자 van Manen (1990)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⁷⁾.

전체론적 접근(wholistic approach) 방법에서는 전체로서의 텍스트에 주목하면서 어떤 핵

7) 천혜정, 최혜경(2001)은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되어 겪는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한 후 van Manen의 전체론적 방법과 선택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심 어구가 전체로서의 텍스트의 기본 의미나 주된 의의를 포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런 다음에 그러한 어구를 정식화함으로써 그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선택적 접근(selective approach) 방법은 한 텍스트를 여러 번 읽고 어떤 진술이나 어구가 기술되고 있는 현상이나 경험과 관련해 특히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그런 다음 이 진술들에 강조 표시를 한다. 세분적 접근(detailed approach) 방법은 문장 하나 하나를 살펴본 다음 이 문장이 기술하고 있는 현상이나 경험에 대해 무엇을 알려 주는가를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을 하다 보면, 여러 기술들에서 특정한 경험적 주제들이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적절한 어구를 끄집어냄으로써 혹은 주제들의 의미의 주요 본질을 단 하나의 단어로 포착함으로써 이 주제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다.

2) 분석에 근거한 글쓰기 작업

글쓰기는 단순히 인터뷰 참가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거기에 연구자의 해석을 덧붙이는 작업이 아니다. 인터뷰 참가자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분석과 글쓰기 단계에서 독립되고 서로 고립되어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주관적 해석을 두려워한 나머지 지루한 일련의 설명 없는 인용들만 나열하여 이론적 해석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간과하기 때문이다. 또는 연구자가 인터뷰 참가자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여 인터뷰 참가자의 설명으로부터 일정한 개념적,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뷰 보고서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단순히 연구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지적하고 싶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통시킬 가치가 있는 중요 쟁점들을 선택하

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질적 인터뷰들은 참가자들의 생활 환경, 사회인구학적 배경 등에 대해 자세히 적어놓고 있는 반면, 연구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실제로 인터뷰 연구 결과가 흥미롭다면, 많은 사람들은 연구의 계획과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따라서 방법에 대해 침묵하기보다는 인터뷰 연구의 독특한 본질이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어 구체적 단계와 절차, 그리고 매순간의 결정들이 가능한 자세히 묘사되어야 한다.

인터뷰 보고서는 기나긴 과정의 최종 산물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다. 그 안에 어떤 글쓰기 스타일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문학적 장치들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자의 선택이 인터뷰 참가자의 일상 세계를 해석하는 특정 관점을 제공하므로 글쓰기 작업은 인터뷰 연구의 질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IV. 맺는 말

어떻게 인터뷰 연구를 시작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야 할 것인가? 인터뷰가 참가자들에게 어떤 이익이나 피해를 줄 것인가? 참가자들이 의미하는 것을 연구자가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터뷰를 분석할 것인가? 해석은 주관적이 아닌가? 방대한 인터뷰를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설문 조사에 제기된다면 대답하기는 쉬운 것이다. 설문 조사를 실행하는 표준 기법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칙들과 필요한 연구 대상의 규모, 질문과 보기 만들기, 수용 가능한 증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분석하는 통계적인 방법 등에 대한 지침들을 제공하는 수많은 교재들이 있다. 양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사용할 수 있

는 표와 그림들의 표준 형식도 있다. 그러나 질적 인터뷰에는 표준 규칙이나 공통된 절차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 범주화시키고, 양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을 주제로 뽑는다고 해서 양질의 질적 인터뷰 연구가 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질적 인터뷰라는 연구 방법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이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첫 단계로 질적 인터뷰가 근저로 삼고 있는 철학이 질적 인터뷰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제 인터뷰를 실행하는 과정과 이 때 생각해 보아야 할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화를 통해 지식을 생산하는 인터뷰 실행자는 인터뷰 주제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도구들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질적 인터뷰의 철학적, 개념적, 이론적인 문제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질적 인터뷰의 기본적인 틀을 고려해볼 때, 구조화 혹은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 참가자들이 가급적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범주화된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장점 혹은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인터뷰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가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참가자들은 누구인지, 인터뷰는 어디서 어떻게 행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연구결과들을 신뢰하기 힘들 수 있다.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지식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인터뷰가 단순히 사회과학 연구의 대안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로서, 객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연구 참가

자로서,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대화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끌어 내는데 자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영필(1999). 후설 유럽 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울산대학교 출판부
- 2) 김태현, 노치영(2003).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생활 체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8), 1-17.
- 3) 이영호(1990). 후설(사상총서 7).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4) 천혜정, 최혜경(2001). 홀아버지들의 이야기: 자녀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23-42.
- 5) 한국해석학회(1996). 해석과 이해. 서울: 지평 문화사
- 6) Bernstein, R. J.(1983). *Beyond objectivism and relativism*. University of Pennsylvania.
- 7) Carr, W., & Kemmis, S.(1986). *Becoming critical*. Philadelphia, PA: The Falmer Press.
- 8) Eisner, E. W.(1991). *The enlightened eye*. New York: Macmillan.
- 9) Hultgren, F. H.(1989). Introduction to interpretive inquiry. In F. H. Hultgren & D. L. Coomer (Eds.), *Alternative modes of inquiry in home economics research* (pp. 37-59). Peoria, IL: Glencoe.
- 10) Gadamer, H. G.(1975). *Truth and method*. New York: Seabury Press.
- 11) Kockelmans, J. J.(1994). *Edmund Husserl's Phenomenology*, 임현규 옮김(2000). 후설의 현상학. 서울: 청계.
- 12) Kvale, S.(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 Oaks, CA: Sage.
- 13) Lincoln, Y. S.(1990). Toward a categorical interpretative for qualitative research. In E. W. Eisner & A. Peskin.(Eds.), *Qualitative inquiry in education*(pp. 277-295).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14) McClelland, J. (1995). Sending children to kindergarten: A phenomenological study of mothers' experiences. *Family Relations*, 44, 177-183.
 - 15) Moustakas. C.(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ousand Oaks, CA: Sage.
 - 16) Palmer, E. R.(1969). *Hermeneutics :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and Gadamer*. 이한우 옮김(1990).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 출판사.
 - 17) Patton, M. Q.(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 18) Radnitsky, G.(1970). *Contemporary schools of metascience*. Gothenburg, Sweden: Akademiforlaget.
 - 19) Silverman, H. J.(1984). Phenomenology: From hermeneutics to deconstruction. *Research in Phenomenology*, 16, 19-34.
 - 20) Smith, J, K.(1983). Quantitative versus qualitative research: An attempt to clarify the issue. *Educational Researcher*, March, 6-13.
 - 21) Smith, L. M.(1990). Ethics in qualitative field research: An individual perspective. In E. W. Eisner & A. Peskin.(Eds.), *Qualitative inquiry in education*(pp. 258-276).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22) van Manen, M.(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23) Yow, V. R.(1994). *Recording oral history*. Thousand Oaks, CA: Sage.